

등록번호	남원초-
등록일자	2023. 9. 01.
처 리 과	남원초등학교 행정실
공개여부	공개

위원장	학교장

회의명	제3회 남원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일시 및 장소	2023년 8월 29일(화) 15:30 ~ 17:00 , 자치실
참석자명단	출석위원 : 12명 중 11명 참석 참석교직원 : 0명
회의진행순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보고사항 6. 안건심의 7. 폐회 	
상정안건 <p>학사운영 변경(재량휴업일 지정) 운영 심의(안)</p>	

심의결과
1.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가. 발언내용 ○ 위원장 (000) : 1일로 결정하고자 함 - 질의사항 없음 나. 결정사항: 1일로 결정 (찬성 11표, 반대 0표)

2. 학사운영 변경(재량휴업일 지정) 운영 심의(안)

○위원장(000) : 서이초 교사 추모 묵념 후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가. 발언내용

○ 제안자(000) : 제안설명

○ 위원(000) : 중복된 내용일지라도 감안하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 내부적 진행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번 사항을 주목하고 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이 모두의 열망입니다. 악성민원 해결 어려움,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공교육 회복의 날’ 동참을 위해 재량휴업일 지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고, 9월 4일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판단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8월 25일/28일 전체교직원 회의 통한 의견을 수렴 하였고, 교육감님 입장문 또한 10월 2일 재량휴업일을 9월 4일로 변경 진행하도록 발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도 선생님들 전체 의지에 동감해 주시고 학사일정 변경(안)을 승인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 위원(000) : 교육부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위원(000) : 제가 확인한 공문은 9월 4일 집단행동 위한 공가, 연가, 병가 사용은 위법이고, 재량휴업일 지정 사유 아니다입니다. 인천, 세종, 경남 교육청 교육감이 일선학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교육부 행태를 지적하는 입장입니다.

○ 위원(000) : 남원에서는 남원초만 재량휴업일을 찬성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모두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고, 모든 책임을 교장, 교감선생님이 진다면 이걸 꼭 진행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대안으로 각 가정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돌봄을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 위원(000) : 위법적인 성격이 있을수도 있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없어 재량휴업일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교직원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만 있었지,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 위원 (000영) : 집회는 취소되었는데도 재량휴업일을 실시하는 이유는 강력한 의지 표명인지요?
- 위원 (000) : ‘공교육 멈춤의 날’은 주도하는 단체가 있다라기 보다는 모든 교사들의 자발적인 나섬이자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입니다.
- 위원장 (000) :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마지막으로 참석하신 모든 위원들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000) :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들의 수업권 및 학부모, 기타 여론 등저는 아직 혼란스럽고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 위원 (000) : 저는 학부모 위원이지만 교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교권보호 및 교사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등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적극 동참하고 재량휴업일을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저도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저도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더 이상 누구의 희생없이 진행되고,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저도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저도 찬성합니다.
- 위원 (000) :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통해 교원 안전 장치를 법제화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교원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나아가서는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나. 결정사항: 원안가결 결정 (찬성 11표, 반대 0표)